

중앙일보

[단독] 사표낸 조국 1호 인사 황희석 "검찰국장 제안 없었다"

기사입력 2020-01-07 10:46 최종수정 2020-01-07 11:45

중앙일보 단독 인터뷰

총선 가능성은 남겨, "문재인 정부 성공위해 일할 것"



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모습. [뉴스1]

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황희석(54·연수원 31기) 법무부 인권국장이 마침내 입장을 밝혔다.

황희석 "어떤 직책도 원치 않아"

6일 사의 표명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설까지 나왔던 황 국장은 7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"언론에서 거론되는 어떠한 직책도 제안받은 적이 없고, 원한 적도 없다"고 말했다.

다만 황 국장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"어떤 계획을 갖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고 우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"며 여지를 남겨뒀다.

황 국장은 "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법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이제 곧 통과될 예정"이라며 "검찰개혁의 밑그림은 그린 것 같아 제 소임은 마쳤다"고 말했다.

조국의 1호 인사

추 전 장관 취임 직후 '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민변)' 출신인 황 국장이 검찰국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임명될 가능성이 보도되자 검찰과 야권에선 "납득할 수 없는 조치"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. 황 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한 조국의 '1호 인사' 인물이기도 하다.

일각에선 청와대가 황 국장의 임명을 원했지만 추미애(62)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는 말까지 나왔다. 하지만 황 국장을 비롯한 복수의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"아무런 근거도 없는 보도였다"며 관련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다.

한 여권 관계자는 "조국 사태 이후 많은 법무부 간부들이 지쳐있는 상태"라며 "대부분 법무부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"고 말했다.



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차에 오르고 있다. 오종택 기자

김오수도 떠날까

한 현직 검사장은 김오수(57·연수원 20기) 법무부 차관도 주변에 "'이젠 그만둘 때가 됐다'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안다"고 전했다.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"아직 김 차관의 거취는 정해지지 않았다"고 말했다.

이번 주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를 포함해 법무부에 파견 중인 부장검사와

일반 검사들도 대폭 물갈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

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. [연합뉴스]

이성윤(58·연수원 23기)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후곤(55·연수원 25기) 법무부 기조실장 등 고위 간부들은 검찰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. 이 국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된다.

이용구는 어디로

검찰개혁추진지원 부단장을 맡았던 이종근(51·연수원 28기) 인천지검 2차장도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있다.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았던 이용구 법무실장도 법무부 차관설과 총선 차출설이 거론된다.

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"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비검찰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안다"고 말했다.



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. [뉴스1]

"인사 크게 돌린다"

검사장급 간부뿐 아니라 법무부 대변인 등 법무부에 파견된 부장검사급 간부들도 곧 교체될 전망이다. 여권 관계자는 "추 장관 취임 뒤 과거와 달라졌다는 시그널을 보이려면 검찰 인사를 크게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"고 말했다.

박태인 기자 park.taein@joongang.co.kr

- ▶ 노후경유차 과태료 35만원 피하려면? 먼지알지!
- ▶ 중앙일보 '홈페이지' / '페이스북' 친구추가

©중앙일보(<https://joongang.co.kr>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25&aid=0002965905>
